

소비기반의 빈약으로 외지에 의존하는 충남 계란

□ 취재/권동원 기자

충청남도 계란유통은 외지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고 있다. 사통오달 지리적 요충지로서 전국 어느곳과도 계란이동이 용이로워 자체 유통의 맥을 갖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행정구역과는 무관하게 교통과 지리적 입지에 의해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 실정이 감안된 고유의 시세가 없이 서울을 비롯한 경북, 전북 등 인근지역 시세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지역내 상권은 소비도시인 대전권, 생산지역인 홍성권, 천안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대전근교 생산기반 전혀 없어

대전권은 인근에 계란 생산기반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가까

운 논산지역에서 하루 30만개 가량 생산되나 논산계란은 서울상인에 의해 집란되어 서울로 반출되고 있다.

대전에서 하루 1천5백판 이상 취급하는 도매상은 20명 정도이다. 주로 홍성과 김천의 양계장을 고정거래선으로 하고 있다. 또 천안과 전주에서도 많은 계란이 반입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 전주는 고정거래선이 아닌 비정기적으로 지역간 시세차이에 의해 이동되고 있다.

계란가격은 서울, 김천, 천안, 전주 시세에 직접 영향을 받고 있으며, 광주나 대구 시세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곳 상인들의 농장 집란가격은 특란 7~8원, 대란 이하는 10원 정도 낮은 가격에 집란되고 있다.

여러지역에서 싼 계란만 들어오는 대전권

지리적으로 홍성, 김천, 천안, 전주가 비슷한 거리에 있어 상인들의 거래선 선택의 폭이 넓다. 따라서 상인들은 각 지역을 적절히 공략해야 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가장 싼 계란이 유통되고 있는 지역이다.

또 거래지역이 다양하다 보니 정확한 물량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대전에서 20년이 넘게 도매업을 해오고 있다는 어느 상인도 계란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고 할 정도다. 단순히 소문을 모아 홍성, 김천 등에서 주로 들어오리라는 짐작일 뿐이다.

한편 이 지역 상인들은 대전근교에 계란 생산기반이 취약한 이유를 여러지역에서 값싼 계란

이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어 제 값받기와 판로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한다.

천안양계조합 상권주도

천안권에서는 하루 50만개 정도 생산된다. 반면 소비처는 천안과 온양의 소도시 밖에 없어 많은 물량을 외지로 반출시키는 생산지역이다.

이 지역 계란유통은 천안양계조합이 상권을 주도하고 있다. 조합은 하루 40만개를 처리하고 있다. 주로 천안 인근의 조합원 계란을 취급하며, 홍성지역에서도 하루 10만개 정도 올라오고 있다.

조합에서는 지역내 도매상과 서울, 청주, 수원 등 도매상에 판매하고 있다.

지역내 도매상은 10명 정도로 매우 영세한 실정이다. 대부분 도매상들은 조합에서 받아온 계란을 거래처에 배달하는 정도로 3원 정도의 중간마진만 취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 소규모 상인들은 조합과의 거래 이후 오히려 편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평이다. 농장 거래의 어려움이 없으며, 조합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완전히 노출되어 가격문제가 마찰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부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합과의 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인의 경우 조합거래가 농장거래보다 조합의 수수

료만큼 가격부담이 되기 때문에 농장 직거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대도매상은 농장 직거래, 중도매상은 조합 거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양계조합 집란가격이 기준시세

한편 천안을 비롯한 충남 일대의 계란가격에 대한 기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계란가격은 충청도지역의 기준가격이 없이 서울에서 고시하는 난가에 직접 영향

이 지역 실정이 반영된 가격이어서 서울 고시시세를 적용하는 거래가 줄고 있다.

반면 천안조합에서는 내부적 집란가격일뿐 대외적인 기준을 삼기 위해 가격을 고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이 가격이 기준이 되고 있어 조합 집란가격은 거래 거래이후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또하나의 후장기가 되고 있다.

천안양계조합 김경렬 조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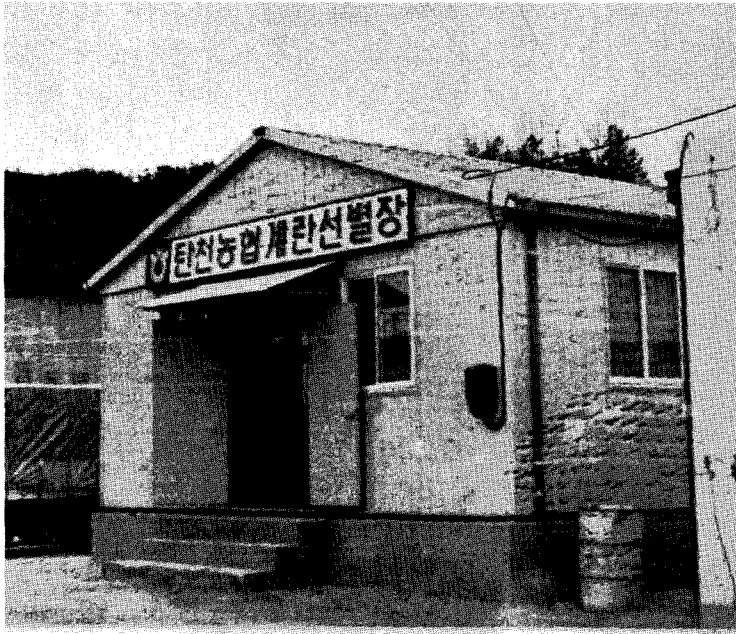
을 받으며 서울 보다 1원 정도 낮게 형성되었지만 양계조합 출범 이후 조합에서 집란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는 서울시세를 적용할 경우 상인과 농장간의 마찰이 빈번하였으나 조합에서 집란하는 가격을 적용할 경우 마찰이 없기 때문이다.

조합의 집란가격은 실거래가격으로 서울 고시시세처럼 D.C가 없어 확실한 기준이 되며, 또

은 “그동안 충청도에서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서울과 충청도의 상황이 다를 때는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고유한 난가체제를 갖기 위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권 하루 1백만개 이상 생산

홍성권에서는 2백만수 이상이 사육되어 하루 생산량이 1백만개



가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생산지는 홍성, 서천, 예산, 청양 등이며 홍성군에서만 130만수가 사육되고 있다.

10년전인 70년대 말까지는 홍성지역이 서울 난가를 주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들어서부터 서울 난가에 의해 홍성 난가가 변화되는 상황으로 반전되었다.

최근 계란가격은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상인은 천안양계조합 집란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내 뚜렷한 소비처가 없어 대부분 계란이 외지로 반출되고 있다. 하루에 외부로 나가는 양이 대전 40만개, 서울 30~40만개, 천안 10만개 정도이다. 외지로 나가는 계란은 지역내 도매상

을 거치지 않고 외지상인이 직접 집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내 도매상은 자체소비 물량만 취급하고 있어 유통 기반은 미약한 편이다.

한편 홍성축산업협동조합은 하루 40만개 정도 취급하는 계란 집하장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몇개월 내에 집하장이 가동될 것으로 보여 홍성축협이 이지역 계란유통구조에 큰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공주 탄천농협이 집하장 운영

공주 탄천농협이 계란집하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탄천농협은 조합원들이 계란판매에 매우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시작하였다. 양계분야에서 비교적 오지

인 공주군 탄천면 생산자들은 지금까지 판로문제로 상인에게 당해오기만 했었다.

탄천농협은 작년 12월 집하장을 설치하여 관내 15농가가 생산한 계란 1일 7만개를 처리하고 있다. 주로 군포, 인천 도매상에 판매하며, 일부 계란은 10개들이로 캡슐포장하여 도내 농협공판장에 공급하고 있다.

신용있는 농협이 도매상과 수량까지 계약으로 판매함으로써 짧은 기간이지만 안정된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생산자들도 판매에 대한 부담이 없어 농협이 계란집하장을 쉽게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례를 확인하였다.

구심점이 필요

충청남도 계란유통은 구심점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점을 지니고 있다. 거래상인이 다양하고 각지역별 생산과 소비 여건이 달라 전체를 하나의 통제권으로 묶어 운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계란가격 문제 역시 고유의 난가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인근지역 시세에 따라 변동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천안양계조합이 집하장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홍성축협이 가세해 준다면 지역실정이 감안된 계란유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